

HEADLINE NEWS

도시활성화를 위해 미술 박람회 개최 (영국: 글래스고市)

영국 글래스고市는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인 「글래스고 아트페어(The Glasgow Art Fair)」를 4월 10~13일까지 개최했다. 이 행사는 런던을 제외하면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미술 박람회로, 작년 행사에만 40개의 갤러리가 참가, 작품 판매액이 총 780,000파운드(한화 약 15억원)에 달하는 성황을 이룬 바 있다. 또 약 16,000명의 방문객이 행사를 찾은 덕분에 市의 관광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작년에 스코틀랜드 관광청이 수여하는 문화관광 부문상을 수상했다.

市는 일찍부터 도시경제에서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 예측하고 준비해 왔다. 1970년대까지는 전통적인 상공업도시였지만 1980년대 초 市 지역위원회가 도시의 이미지와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문화 활성화 정책을 실시한 결과, 오늘날 이 도시의 예술친화성은 기업들이 입지선정을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www.glasgowartfair.com/)
(www.glasgow.gov.uk/html/council/cindex.htm)

HIGHLIGHTS

도시환경

- ① 재활용 촉진 방안으로 쓰레기매립세 인상 (캔버라)
- ②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약한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상 수여 (슈투트가르트)

도시교통

- ③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교통표지판 설치 (미국: 알렉산드리아市)
- ④ 혼잡 완화 및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신속 처리 프로그램」 개발 (오하이오州: 콜럼버스市)
- ⑤ 도심 도로구간 內 좌회전 금지로 교통 혼잡 완화 (뉴욕)
- ⑥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계획 (브리즈번/로스앤젤레스)
- ⑦ 자동 과속 경고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감소 (런던)
- ⑧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전대책 강화 (베를린/멜버른)

사회복지

- ⑨ 근로자 복지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 (싱가포르)
- ⑩ 홈리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강습회 개최 (東京)

행·재정

- ⑪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파출소 운영 (포츠담市)
- ⑫ 복합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한 One-Stop센터 운영 (볼티모어市)

① 재활용 촉진 방안으로 쓰레기매립세 인상 (캔버라)

최근 남호주정부(The South Australian Government)는 지금까지 매립쓰레기 1톤당 3\$(호주달러)씩 부과하던 쓰레기매립세를 1톤당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쓰레기매립량을 대폭 줄이고, 매립세 징수로 마련되는 재원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등의 사업에 활용할 목적이다. 매립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추가 재원은 연간 200만\$ 정도라고 한다.

쓰레기매립세는 쓰레기 배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재활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일종의 목적세로 녹색세(Green Taxa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매립세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거나 매립지 인근지역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주로 유럽연합 국가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인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통해 가정쓰레기 매립량을 63%에서 32%로 감소시켰고, 덴마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량을 25%에서 90%로 증가시켰다. (www.zerowaste.co.nz)

② 전기료와 난방비를 절약한 시민에게 「에너지 절약상」 수여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환경부는 대기오염방지 및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실제 활용도가 높은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市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1℃만 낮춰도 난방비용의 약 6%를 절약할 수 있고, TV와 비디오 등 가전제품의 작동 대기상태를 해제하고 전원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에는 연간 약 440kW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전기료를 연간 약 75유로(한화 약 10만원)나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市는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상 시상도 계획중이다. 작년 10월부터 올 9월 30일까지의 전기료와 난방비 내역을 근거로 하여 가장 많이 절약한 시민에게 이 상을 수여할 계획으로, 상금 규모는 총 25,000유로이다. 에너지 절약 시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시민은 환경부의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된다. (www.stuttgart.de/sde/menu/frame/top_11021_11041.htm)

③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교통표지판 설치 (미국: 알렉산드리아市)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Alexandria)市는 운전자의 편의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기존의 교통표지판을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중이다. 이 교통표지판은 일몰 무렵이 되면 자동으로 안내판에 조명등이 켜지기 때문에, 야간 운전의 불편을 겪던 노령운전자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市는 우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표지판을 교체중인데, 앞으로 매년 30개씩 총 150개 교차로에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이러한 교통표지판은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37487-2003Mar3.html)

④ 혼잡 완화 및 추가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프로그램」 개발 (오하이오주: 콜럼버스市)

미국 오하이오주 교통당국은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 혼잡 완화 및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Ohio Quick Clea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사고 처리대원들이 숙지해야 할 일련의 제도와 절차를 그 내용으로 한다. 주는 최근 데이턴(Daton)市를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수주 이내에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는 「Ohio Quick Clear」의 2단계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중이다. 이는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경미한 사고일 경우 사고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경찰, 주교통부, 주환경부, 소방 관련기관, 자동차 관련 기관, 응급 의료서비스 기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개발되었다.

(www.state.oh.us/ohiostatepatrol/media/2003/03-069.htm)

5] 도심 도로구간 內 좌회전 금지로 교통 혼잡 완화 (뉴욕)

미국 뉴욕市 교통당국은 도심 교통소통 향상 시책으로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Thru Streets」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맨해튼 지역의 혼잡한 도로구간 8곳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좌회전 금지를 실시하여 도로 교통 흐름을 실험한 것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행구간에서의 평균 통행속도는 4.0mph에서 6.1mph로 53% 증가하고 통행시간은 34%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의 경우 시간당 4,190대에서 5,050대로 20% 증가하여 도로용량도 향상되었다. 또한 좌회전 신호 금지로 인해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시간이 늘어나 보행자의 안전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www.nyc.gov/html/om/html/2003a/pr063-03.html)

6]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계획 (브리즈번/로스앤젤레스)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市는 기존의 경전철(Light Rail Transit) 계획을 취소하고, 버스중심의 교통체계(버스전용도로, 환승센터, BMS 등)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버스가 경전철에 비해 운영비가 20% 적게 들고, 환승시 저항감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Busway) 건설이 포함되어 있어, 주요 교통축의 교통수단 부담율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市도 중앙정부 보조금 98백만\$(약 1200억원)을 이용해 산페르난도(San Fernando)에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市도 계획 초기에는 경전철 도입을 추진했으나, 소요예산과 전용도로의 장점때문에 계획을 변경했다.

(Brisbane, Busway Strategy Plan, IRTP, 1995, Metropolitan Brisbane Busway Program, Transitway Design Manual, Ottawa-Carleton, 1993)

(The daily news of Los Angeles, 2003.2.6)

7 자동 과속 경고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감소 (런던)

영국 런던시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과속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교통사고를 1/3이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통부는 작년 한해 동안 영국 도시부 주요 60개 지점에 자동 과속 검지기를 설치하여 이 조사를 수행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검지기와 경고메세지가 이용되었는데, 모든 경우에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노면굴곡 경고 메시지 등 위험경고 메세지는 속도를 평균 7마일 정도 감소시키고, 속도 감시 카메라는 4마일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ocal Transport Today, 2003.3.20)

8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전대책 강화 (베를린/멜버른)

독일 베를린시는 보다 적극적인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해 올 5월까지 시민들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5호선과 8호선 20개 객차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6호선과 7호선까지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하철역의 안전요원 증원 계획도 추진중인데, 이는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시민의 91%가 이러한 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실업자들을 안전요원으로 투입할 계획인데, 원활한 안전경비를 위해서는 약 1천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계획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하철역 안전대책 강화라는 2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시는 철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 역내에 3면 입체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안카메라에 잡힌 범죄 장면을 게시하고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대중교통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여, 시민들이 철도역을 위험한 공공장소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Berliner Morgenpos, 2003.3.6)

(www.theage.com.au/articles/2003/03/08/1046826571825.html)

9 근로자 복지 우수 기업 선정 및 시상 (싱가포르)

싱가포르 지역사회개발·체육부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해 직장생활의 능률과 생산성 및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Work-Life Information Sharing Session」을 개최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부터 매년 「Family Friendly Firm Award」를 실시하여 근로자 복지 우수 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에 선정된 우수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CEO와 인사관련부서 직원들이 근로자의 근무 효율성과 복지 증진에 관한 다양한 전략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관련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싱가포르의 정책은 서울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www.aboutfamilylife.org.sg/1_4_22_0_0_0_0_0.htm)

법률 홈리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강습회 개최 (東京)

최근 일본 東京에서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홈리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사법서사 등으로 구성된 ‘홈리스 종합상담 네트워크’의 법률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거리 강습회는 위법적인 암거래 금융업자를 테마로 한 공연을 시작으로, 채무의 시효 및 자기파산 절차 등 채무 관련 전반에 대한 설명회가 이어졌다.

‘홈리스 종합상담 네트워크’는 앞으로 월 1회의 정례 법률 상담회를 거리나 행정시설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상담회 개최, 개별 법률상담, 가난한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금 설립 등도 추진중이다.

(아사히신문, 4.6)

독일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파출소 운영 (포츠담市)

독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州 포츠담(Potsdam)市는 현재 독일연방 최초로 인터넷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로 환영 받는 인터넷파출소는 1년 내내 24시간 온라인 상태로 운영되므로, 시민들은 직접 파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경찰/파출소와 관련한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인터넷파출소를 통해 집회신고, 사고, 불편신고 및 고발 등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출동을 요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파출소가 아닌 기존의 전화 번호 110을 이용해야 한다.

(www.internetwache.brandenburg.de)

미국 복합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한 One-Stop 센터 운영 (볼티모어市)

미국 볼티모어(Baltimore)市는 지난 해 12월부터 市의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인·허가 민원을 한 장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One-Stop Shop Permit Cente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주로 ‘주택 및 지역개발과’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이 시설은 지역주민, 개발업자, 도급업체, 건축업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신속히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민원인-통행 관리시스템(customer-traffic management system)을 채택하여 효율성을 높였는데, 연 2만건 이상의 인·허가 민원 중 90%는 1일 이내에 처리되고, 보다 복잡한 10%의 민원처리기간도 과거 25~40일에서 15~25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위생, 건축, 도시계획 등 54개 업무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의 처리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데 비하면, 이 센터는 시설과 처리 프로세스는 우수하나 업무처리의 공개성과 투명성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www.ci.baltimore.md.us/government/hcd/press/021209.html)